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0호 【루계 제24483호】 주체103(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324군부대, 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최룡해동지, 장정남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조경철동지, 황병서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조선의 힘》, 시랑송 《말하라 선군의 명산 대덕산이여》, 녀성4중창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재담 《높아진다》, 짧은극 《노래폭탄》, 녀성중창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실화이야기 《위대한 전우》, 녀성5중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선동시극 《억세게 이어가자 백두의 전통을》, 극중창 《우리를 본다》, 토막극 《훈련장의 두 분대장》, 대화시 《최고사령부 지붕아래 우리 삽니다》, 녀성독창과 어은금병창 《조국찬가》, 녀성2중창 《군민아리랑》, 극선동 《원한의 수직갱》,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백전백승의 무적의 전투대오,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위용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천만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보람찬 군무생활을 이어가는 군인들의 복된 삶과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의 두리에 정과 뜻으로 굳게 뭉쳐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려는 신조,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발사된 총탄마냥 곧바로 가려는 일편단심, 사회주의조국을 총폭탄되여 옹호보위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사의 각오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관람자들은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참모습을 감명깊이 새겨안았다.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대하마냥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당정책으로 만장약된 공연, 당의 사상이 꽉 들어찬 공연, 바늘들어갈 틈도 없는 잘 째인 공연, 자기 부대의 특성과 얼굴이 살아나는 힘있고 박력있는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군인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불타는 조국애, 위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작품들을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새 문화창조자들인 그들의 혁명적인 창작, 창조기풍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참가하여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힘있게 과시한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324군부대, 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들에 대한 경연평가를 모두 특등으로 할것을 친히 제의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선전대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324군부대, 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원들은 부강조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공연을 보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참고소식》, 《길림신문》, 홍콩 《대공보》, 이란신문 《이란뉴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신화망, 환구망, 참고소식망, 중국망, 이란신문 《이란뉴스》,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인민망, 신화망, 중국망,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신데 대하여,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동북보도망, 동북망은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새로 개건된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돌아보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돌아보시였으며 로농적위군지휘성원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으며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보신 소식,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광명성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신 소식,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인류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조선

국제사회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조국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격찬하고있다.

라오스국가라지오방송은 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당과 국가는 정책을 하나 작성해도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고 도시와 공장, 건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다.

세상에는 막대한 물질적부를 자랑하고 《만민복지》를 떠드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이처럼 인민대중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란 《로동자의 집》 국제관계총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근본목적으로 삼고있다고 말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된 조선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인 정책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인민정권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사회생활전반에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국가의 인민적혜택이 돌려지고있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식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이 실업을 모르며 녀성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식사회주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우월한 제도이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나라의 주권은 모두 인민들에게 있으며 그들은 자기자신이 미래를 설계하고 참다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노르웨이지부 대표는 인류의 꿈과 리상은 동방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현실로 실현되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조선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가 세워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21세기 인류의 락원, 리상사회는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된 조선식사회주의이다고 격찬하였다.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는 블레찐에 게재한 글에서 오늘 조선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전설들이 날마다 꽃펴나고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있다, 주체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떠받들려 길이 륭성번영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앙선거위원회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

전당, 전군, 전민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전체 선거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중앙선거위원회는 2014년 3월 9일에 실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전체 선거자들은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100% 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심의 표시이며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오각별 찬연히 빛나는 람홍색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세기적인 기적과 미증유의 대변혁을 창조하여온 우리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가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담보를 마련하시였으며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뚜렷이 밝히시여 공화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필승의 보검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내세워주시고 최정예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시여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숭고한 애민정치, 광폭정치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전설적인 새 력사를 펼치시여 령도자와 한피줄을 잇고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행복을 활짝 꽃피우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일으키시고 군대와 인민의 애국의 힘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강성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하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영웅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세계를 향하여 비약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천만군민에게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공화국의 창창한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건설한 공화국정권을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참다운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우리 공화국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성번영할것이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전체 선거자들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공화국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구선거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제출한 투표결과에 따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보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주체103(2014)년 3월 10일 평 양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긍지드높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크나큰 긍지드높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의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승리의 신심을 안고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한달동안에 소석회 5 700여t, 유기질비료 4만 9 100여t과 석탄재, 석비레 등의 흙깔이재료 55만여t을 포함하여 60여만t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냈으며 오리새, 자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영양가높은 먹이풀씨 수십t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집짐승우리와 살림집, 공공건물건설에 필요한 골재 2 600여㎥, 세멘트 3 370여t, 통나무 3 300여㎥, 강재 220여t 등 많은 자재들을 확보하면서 대상건설준비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중앙현장지휘부에서는 목표를 높이 세우고 먹이풀판조성과 대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시하고 토양개량제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많은 량의 먹이풀씨와 건설자재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웠다.

모든 단위 정치일군들이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전투장을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집중되여 혁명의 북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는 전투장에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승리의 신심안고 날마다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지휘관들은 군인건설자들속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꽃피우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주변지역에서 토양개량제매장지를 찾아내고 건설자재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4만 6천여t의 유기질비료, 석탄재, 소석회를 실어냈으며 500여㎥의 목재와 많은 강재, 흔석을 확보하였다.

세포군사단에서는 지난해 풀판조성과 축산기지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올해 계획된 전투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였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화선식선전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결과 돌격대원들은 한달동안에 1 500여㎥의 통나무를 생산하였으며 신생지구에서 10여일동안에 7 400여t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사단의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도 자기 단위 책임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풀판조성과 대상건설준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봉사총국돌격대에서는 진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유기질비료생산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많은 량의 먹이풀씨를 확보하였다.

보건성돌격대에서는 170여t의 집짐승배설물을 확보해놓은데 이어 소석회, 유기질비료, 흙보산비료원료운반계획을 평균 1.7배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1만 3 000여대의 활창대를 비롯한 모판자재들도 마련해놓았다.

조선대양총회사돌격대에서는 100t의 집짐승배설물과 1만㎡의 비닐박막, 1t의 영양가높은 먹이풀씨를 확보하여 풀판조성의 좋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륙해운성돌격대에서는 300여t의 연재와 카바이드재를 수송하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20일동안 60여t의 진거름과 석탄재를 실어냈으며 비닐박막 4 000㎡, 2 000여대의 활창대를 확보하였다.

전자공업성돌격대에서는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여 계획된 량보다 1.4배이상 더 많은 소석회와 흙보산비료원료를 실어내였다. 은하지도국돌격대에서는 220t의 세멘트와 11t의 강재, 많은 량의 통나무와 발대목을 해결하여 올해 계획된 대상건설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수 있게 하였다.

원유공업성돌격대에서는 유기질비료생산에 힘을 넣어 1 000여t을 실어냈으며 림업성돌격대에서는 140여t의 원료를 확보하여 흙보산비료생산을 다그쳐나갔다.

평강군사단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려나갔다.

또한 각 도책임일군들과 련계하여 풀판조성에 경험이 있는 도안의 기술자들의 방조밑에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고 각이한 조건에서의 먹이풀재배시험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토양개량제생산을 내밀어 수천t의 린회토와 6만 700여t의 개바닥흙을 실어내고 자연풀판조성에 필요한 백수십만포기의 칡모도 온실에서 생산하게 하였다.

라선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8 500여t의 흙깔이재료를 실어냈으며 490여t의 소석회와 500여t의 흙보산비료원료를 확보하였다.

황해북도려단에서는 정보당 100t이상의 토양개량제를 낼 목표밑에 소석회생산을 다그치면서 로력과 륜전기재들을 총집중하여 완강한 돌격전을 벌렸다.

결과 계획된 량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천군사단의 돌격대들에서도 불굴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풀판조성준비를 힘있게 다그쳤다.

평양원예지도국돌격대에서는 지도국과의 련계밑에 100여t의 카리비료를 확보하고 460여t의 흙보산비료원료도 마련하여 지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혁명사적지도국돌격대에서는 300여t의 흙깔이재료를 확보하였으며 유기질비료생산량도 늘이였다.

글 본사기자 정영철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인민보안부돌격대에서—

대홍단군에서

충정의 한표를 바친 기쁨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충정의 한표, 찬성의 한표를 바친 기쁨을 안고 대홍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감자농사는 대홍단군에서처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군에서는 이미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채종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농장별수요에 따르는 좋은 종자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데 많은 품을 넣고있다.

이에 따라 모든 농장 감자종자저장고들에서는 급수별로 감자종자를 갈라놓고 그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군농업경영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감자종자보관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놓고 관리공들에게 5일에 1차씩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군에서는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선진영농기술을 배우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고있다.

군에서는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앞선 단위를 내세우고 모든 작업반,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다수확우량품종 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동시에 감자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본보기포전들이 정해지고 여기에 거름을 집중시키고있다.

농장들에서 감자포전들에 정보당 많은 량의 질좋은 거름을 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하여 거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로 뛰여올랐다.

기계화면적이 많은 실정에 맞게 군에서는 감자포전담당관리제, 기대담당책임제를 강화하고있다. 이리하여 기대수리로부터 관리, 영농공정별작업에 이르기까지 뜨락또르운전수들과 관리공들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대홍단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금야강2호발전소건설 마감단계에서 추진

금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긍지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금야강2호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기본언제와 발전기실골조공사가 이미 끝났으며 토언제공사, 방수로공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되여 전력생산의 동음이 울려퍼질 시각이 가까와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함께 중소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군에서 건설하고있는 금야강2호발전소는 적은 품을 들여 많은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실리가 보장된 발전소이다.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군내 지방공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은 물론 주민지구에 필요한 전력도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

여러해전부터 군에서는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밑에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금야강2호발전소건설을 근기있게 내밀어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군의 일군들은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결속하여 어떻게 하나 올해 상반년안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부터가 발이 닳도록 현장을 밟으며 걸린 고리들을 찾아 앞질러 풀어주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세우고있으며 건설자들의 앙양된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군의 일군들은 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는데 맞게 필요한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도 립체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금야강을 하루빨리 군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전기강, 보배강으로 전변시킬 일념안고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군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방수로공사와 발전기실지붕트라스조립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건설장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이 드세차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전투원들모두가 높이 세운 하루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전에는 누구도 현장을 뜨지 않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들은 공사에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것이 질보장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토언제공사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군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립체전, 전격전, 섬멸전을 벌릴 기세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맡겨진 전투과제수행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수력자원이 풍부한 군의 실정에 맞게 전력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열의속에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군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에 떠받들려 발전소완공의 시각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분조장들이 앞장에 섰다

각지 농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이며 분조농사와 관리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농촌의 초급지휘성원입니다.》

알곡증산으로 우리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 일념안고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분조장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분조농사의 참된 주인

함주군안의 협동농장 분조장들이 분조농사의 참된 주인이 되여 당면한 영농전투의 앞장에서서 일자리를 푹푹 내고있다.

한해농사에서 씨뿌리기준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동봉협동농장 제1작업반 3분조장은 한m의 바람막이바자를 쳐도 손색이 없도록 실천적모범을 보이고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장의 비닐박막을 수리해도 정성을 다해 흠잡을데 없이 하도록 조건보장을 앞세우고있다.

주서협동농장 제3작업반 1분조장도 하나의 중소농기구를 수리해도 품을 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련포, 송정협동농장의 분조장들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데서 밑거름이 될 각오를 안고 고무래와 물초롱, 초물농기구 등 소농기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중화군 판봉협동농장 제1작업반 2분조장은 분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모든 포전에 정보당 수십t씩의 질좋은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거름생산목표를 보다 높이 세운 그는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분조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삼성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장은 전투원은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는 현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흙보산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는 흙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밑비료와 모살이비료로 쓸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분조원들을 이끌고있다.

어룡협동농장 제4작업반 2분조장, 채송협동농장 제4작업반 1분조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의 분조장들도 유기질비료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지혜와 힘을 합쳐

문천시안의 협동농장 분조장들이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뛰고있다.

남창협동농장 제5작업반 1분조장은 대중속에 들어가 배우기도 하고 배워주기도 하면서 후민산염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농사에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고암, 룡탄협동농장의 분조장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그들은 농업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자면 두벌, 세벌농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혁명렬사 김일동지 서거 30돐
중앙추모회 진행

【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혁명렬사 김일동지 서거 30돐 중앙추모회가 1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추모회장정면에는 혁명승리의 표대인 붉은기가 펼쳐져있었으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들이 추모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추모회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김평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 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추모회는 《빨찌산추도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추모사를 하였다.

추모회는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아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추모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충실성의 모범을 본받아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자

중앙추모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의 추모사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으며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장구한 로정에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한생을 당과 조국을 위해 바친 불굴의 혁명전사들의 위훈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진정한 동지, 전우가 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항일혁명투사 김일동지는 그 영광스러운 대오의 전렬에 서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이 다그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김일동지의 서거 30돐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투사의 혁명적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선렬들의 숭고한 넋을 끝까지 이어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습니다.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여나 일찍부터 혁명투쟁에 참가한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받들고 지하당 및 반일대중단체사업에 투신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로숙한 정치일군으로 자라나 항일대전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해방후와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일동지는 민족보위성 부상,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평안남도당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고 정규무력건설과 우리 당의 강화발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 제1부수상, 정무원총리, 공화국 제1부주석의 직책을 력임하면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항일의 불길속을 헤쳐온 혁명의 1세로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몸 다 바쳐온 김일동지는 주체73(1984)년 3월 9일 74살을 일기로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김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위업을 개척한 수령과 그 후계자를 대를 이어 받들어모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혁명전사의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김일동지의 혁명적생애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떤 풍파가 있어도 드놀지 않고 한본새로 당과 수령을 충실히 받든 고지식한 혁명가였다고 하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승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견결히 투쟁한 혁명투사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김일동지는 혁명의 개척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견결히 옹호보위한 혁명전사였습니다.

혁명을 하자면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그 두리에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것은 김일동지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드팀없는 신념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동지는 늘 대원들에게 우리가 다 만리타향에 묻히여 무주고혼이 된다 해도 사령관동지께서만 계시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군 하였습니다.

하기에 김일동지는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1940년대초 사령부에서 한 전령병이 련락임무를 맡고 소부대를 찾아왔을 때 사령관동지의 곁을 순간도 떠나서는 안된다고 엄하게 책망하고 선자리에서 되돌려보냈던것입니다.

조선혁명의 령도의 중심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한분이시라는 김일동지의 혁명적신조는 어떤 환경에서도 드팀이 없었습니다.

1956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중요한 정책적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당과 국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있던 한 종파분자가 인민생활을 거들며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시비해나서자 김일동지는 즉석에서 추상같은 목소리로 그자의 궤변에 숨겨진 흉심을 발가놓고 된타격을 가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김일동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는 나쁜놈들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제때에 타격을 주어 우리 당과 당정책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혁명가였다고 치하하시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위업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일찌기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민족의 대통운으로 맞이한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기질과 담력, 혁명의 수령을 받드는 뜨거운 충정에서 조선혁명의 창창한 앞날을 굳게 확신한 김일동지였습니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뚜렷이 보여주신 비범한 정치실력에 완전히 매혹된 김일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모셔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승승장구할수 있다는 확신을 불변의 의지로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하기에 김일동지는 자신의 열렬한 념원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뇌부에 높이 추대할것을 절절히 제기하였던것입니다.

김일동지는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섬으로써 로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민족만대의 명맥인 백두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는 길에서 김일동지가 발휘한 충정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고귀한 귀감으로 됩니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김일동지의 충실성이 이처럼 고결하고 변함이 없었던것은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에 기초한것이였기때문입니다.

김일동지가 지닌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정은 파란많은 혁명투쟁속에서 철석으로 다져진것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망국노의 설음과 고통을 체험하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넘고 헤쳤으며 이 과정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민생단》혐의자의 루명을 쓰고 온갖 고초도 겪은 김일동지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혁명은 절대로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습니다.

김일동지가 홍두산밀영에서 그토록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된것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뜻깊은 사변이였으며 혁명의 수령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지니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인품과 비범성을 온몸으로 절감하게 된 김일동지는 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높이 받들어모셔야 할 민족의 태양이심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였으며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한생토록 충정다할 각오와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였습니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하였기에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지극하였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천리불비속을 헤치시고 전선사령부를 찾으시였을 때 무장을 틀어쥐고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온밤 위대한 수령님의 숙소를 지켜드린 김일동지의 모습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감동깊은 화폭으로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전해지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김일동지의 충실성은 순결한 혁명적의리에 바탕을 둔 진실하고 공고한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일은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집행을 상급앞에 지닌 하급의 의무로만 아니라 령도자에 대한 전사의 의리로 여기는 진짜배기혁명가였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자기의 내심을 가볍게 내비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준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끝까지 보답하려는 충정의 마음이 맥박치고있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였기에 김일동지는 중병에 걸린 때에도 집무실이나 생산현장을 떠나지 않고 한가지 일이라도 더 많이 해놓기 위해 모든 정열을 다 바치였던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시던날 김일동지가 운신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지팽이를 짚고 평양역에 나가 장군님을 정중히 맞이하며 열렬한 축하를 드린 사실은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로혁명전사의 의리심이 얼마나 순결하였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합니다.

김일동지의 혁명적생애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실천가형의 참다운 지휘성원의 한생이였습니다.

혁명의 개척기부터 령도자의 사상과 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온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각지의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나가 경제사업을 정력적으로 지휘하였습니다.

당정책집행에 대한 김일동지의 무비의 헌신성은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된 전력증산을 위한 전투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였습니다.

그무렵 병으로 다른 직무에서 사업하던 김일동지는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를 푸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할 일념으로 당중앙위원회에 자기를 중요한 동력기지건설대상의 하나인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공사장에 나간 첫날부터 키낮은 가설건물에 사무실을 정하고 높은 계단을 지팽이에 의지하여 오르내리면서 건설을 불이 번쩍나게 추진시켜나갔습니다.

그는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해결하기 위해 탄광의 지하막장에까지 들어갔으며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하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으면서 생각되는것이 없는가고 일깨워주면서 그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김일동지는 그해말에 드디여 발전소보이라에 불을 지피고 석탄까지 넉넉히 확보해놓은 다음에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완공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서 그가 발휘한 견인불발의 혁명정신과 전투적인 일본새는 오늘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로 됩니다.

김일동지는 높은 당조직관념과 무한히 겸손하고 청렴결백한 품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였습니다.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귀중함을 깊이 체득한 김일동지는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과 아래일군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실태그대로 즉시에 당에 보고하고 결함을 고쳐나가군 하였으며 림종 사흘전에 소속된 당세포에 찾아가 부주석으로서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잘 받들지 못한 부족점을 총화한데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김일동지는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높은 직무에서 활동하였지만 세도와 관료주의를 몰랐으며 그 어떤 특전이나 특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나 농촌에 지도사업을 나갈 때마다 집에서 점심밥을 꺼려가지고 가는것은 김일동지의 생활관습이였습니다.

아래일군들이 따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도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현지지도를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인민들에게 부담을 끼치겠는가고 하며 꾸중하군 하였습니다.

해당 부문에서 집을 보수하려고 할 때마다 김일동지는 한삽의 세멘트라도 아껴 인민들의 살림집을 지어주는데 쓰라고 하면서 집수리를 미루게 하였으며 그 누가 색다른 물건을 가져다놓으면 간부들의 집에 공짜가 생겨서는 안된다, 공짜는 독약과 같다고 하면서 그날로 되돌려보내군 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후대들을 당과 수령만을 아는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자주 강냉이죽도 쑤게 하고 마당에서 감자를 구워 자식들과 함께 들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헤쳐온 항일의 혈전만리가 얼마나 간고했는가를 깨우쳐주군 하였으며 어린 손자에게 해진 신발을 기워신는 방법도 가르쳐주며 이런것도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타일러주었습니다.

참으로 김일동지는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혁명앞에 쌓아올린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주체형의 견결한 혁명투사였습니다.

김일동지의 한생이 그토록 값높은 삶으로 빛날수 있은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은정과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병치료가 잦은것으로 하여 죄송해할 때마다 자신의 곁에서 말동무만 해주어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군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암성질환으로 대수술을 할 때에는 장시간 립회까지 서주시였으며 그에게 오르내리기 편리하고 좌석이 큰 대형승용차를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중임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김일동지가 우리곁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저명한 활동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그의 생애와 투쟁업적을 담은 교양자료들과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를 만들게 하시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투철한 신념과 의리를 지니고 한생을 빛내인 김일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혁명가적풍모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며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줄것입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두의 혁명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적극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모시고 받들며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우에 인민들이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념원이였으며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며 건설부문과 과학기술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생명선인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당과 수령을 받든 혁명선렬들처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당정책을 관철하며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선렬들이 걸어온 혁명의 천만리길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꿋꿋이 이어나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갑시다.

혁명렬사 김일동지의 반신상에
화환진정

【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혁명렬사 김일동지 서거 30돐에 즈음하여 10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그의 반신상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반신상앞에 놓여있었다.

화환진정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정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당, 무력, 정권기관, 위원회,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유가족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일동지의 반신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부, 위원회, 중앙기관, 시내 당, 정권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 김일동지를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천마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당원들과 광부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에 당원들과 광부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의 집중포화를 들이대고있다.

일군들이 막장에 들어가 광부들속에서 창조되고있는 혁신적성과들을 전투속보와 방송선전차를 통하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활발히 벌어지는 선전선동사업은 당원들과 광부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어 그들이 날마다 광물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강성희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은 고정격식화된 틀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사업이 참말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실적있는것으로 되게 하자면 정치사업에서 도식적인 낡은 틀, 형식주의 틀을 마스고 그 내용과 형식을 대담하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는 사상사업의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활용할 때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킬수 있다. 이 측면에서 득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따라배울 점이 있다.

지난 1월초, 월생산총화모임에 참가하였던 초급당비서 장현철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달마다 생산총화모임은 어김없이 진행하고있지만 일부 단위들이 뒤떨어지기때문이였다.

보고서를 대신한 예술선동

득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원인이 무엇인가.

초급당일군은 5갱의 일군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생산총화모임을 새롭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

사실 탄광에서 달마다 진행되는 생산총화모임은 지배인이 보고를 제기하고 앞선 단위와 그렇지 못한 단위의 일군들이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었다.

보고서에 지적된 단위의 일군들은 자극될것이였지만 지적되지 않은 단위의 일군들은 관심이 적었다. 참가대상도 기본생산단위인 중대의 중대장들이 아니라 갱장이상 일군들이였다.

이런 생산총화모임이 반복되는 과정에 모임진행방식은 하나의 틀로 되다싶이 하였다.

생산총화모임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켜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자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격식과 틀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해야 한다.

문득 그에게는 1갱의 막장에 갔을 때 탄광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을 본 탄부들이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당앞에 결의다진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고 열변을 토하던 일이 떠올랐다.

예술선동이 대중에게 주는 감화력은 매우 크다.

생산총화모임에 제기할 보고서의 자료들을 예술선동형식에 담아 생동하게 보여주면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킬수 있는것은 물론 탄광기동예술선동대의 기량을 높이는 면에서도 좋을것이다.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이렇게 흘렀다. 그후 지배인 전학철동무와의 진지한 토의를 거친 초급당비서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찾아갔다. 보고서의 자료들을 예술선동형식에 담자는 초급당일군의 제기에 기동예술선동대 대장을 비롯한 선동대원들은 적극 응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선동시, 중창 등 다양한 형식의 예술소품들에 생산총화모임보고서에서 언급할 내용들을 담게 되였다.

생산에서 앞서나가는 단위는 크게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단위의 일군들은 웃음속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술선동은 참가자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모범적인 갱장, 중대장, 소대장들을 무대에 내세워 축하도 해주고 경험도 발표하게 하였다. 앞선 단위와 일군들에 대한 시상도 그 자리에서 하였다.

예술선동의 마감은 지배인과 초급당비서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결속하였다.

기동예술선동대를 인입하여 생산총화모임을 감화력이 큰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대중과 교감이 잘되였다. 사람들에게 주는 여운 또한 비할바없이 컸다. 더우기 생산총화모임에 소대장들을 비롯하여 실지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참가시키니 그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높여줄수 있었다. 탄광기동예술선동대의 수준도 더 높아지게 되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준법교양도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상사업에서는 형식과 방법이 참신해야 커다란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것이 득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실천을 통해 찾은 결론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든 열혈의 혁명투사

혁명렬사 김일동지의 서거 3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혁명의 수령, 삶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였던 우리 당과 인민의 충직한 아들인 김일동지가 서거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흐르고 혁명은 아득히 전진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선군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오늘도 항일혁명선렬들의 정신과 넋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쳐 싸워온 견결한 혁명투사,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과 당과 국가, 새 사회건설에 불멸의 공적을 쌓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저명한 활동가였던 김일동지의 한생은 오늘도 혁명전사의 인생관에 대한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백절불굴의 신념, 수령을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억척불변의 의지, 이것이 김일동지의 일생에 세워진 기둥이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김일동지의 한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을 받드는 1번수

어느해 여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한 병을 앓고있는 김일동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김일 제1부수상동지는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부터 혁명해온 혁명의 원로이라고 그리고 오늘은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드는데서 1번수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진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이가 많지만 우리 당과 혁명에서 김일 제1부수상동지가 차지하고있는 위치는 달리될수 없다고, 뭐니뭐니해도 몸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가슴뜨겁게 당부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받드는 1번수!

김일동지가 받아안은 이 고귀한 칭호는 당과 수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생명선으로 삼고 투쟁하여온 혁명전사에 대한 최상의 정치적평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의 큰 산들을 넘어오면서 오직 수령님의 안녕과 절대적권위를 옹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열혈의 혁명전사 김일동지,

그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혁명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이 있으며 전사의 영광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우리 혁명의 첫 세대였다.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중대정치지도원, 련대정치위원으로 성장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1910년 함경북도 어랑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나 나라를 빼앗긴 설음을 안고 간도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불우한 식민지청년이였다.

이러한 김일동지가 당과 수령의 믿음속에 우리 조국력사에 커다란 자욱을 새길수 있은것은 그를 어엿한 혁명가로 손잡아 성장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때문이였다.

하기에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었으며 당사업과 군건설, 경제지도의 어느 분야에서나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막힘없이 수행하였다.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였다.

김일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지휘관이였지만 지하공작을 하거나 소부대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흰쌀과 기장쌀을 넣은 배낭을 메고오군 하였다.

《우리 모두 굶어죽어도 사령관동지께만은 절대로 강낭밥과 같은 험한 식사를 대접해드려서는 안되오. 우리가 다 이 만리타향에 묻히여 무주고혼이 된다 해도 사령관동지께서만 건강하시면 조선혁명은 살아서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되오.》

이것이 김일동지의 좌우명이고 신념이였다.

김일동지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전선사령부 군사위원으로 사업할 때에도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김책동지와 함께 밤을 새워 보초근무를 수행하였다.

호위사업은 자기들이 맡겠으니 들어가라고 권하는 호위성원들에게 한 김일동지의 말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동무들이 알아둘것은 지금 우리는 전선사령관이나 군사위원이 아니라 장군님의 보초병이요. 우리는 백두산에서부터 장군님을 지켜온 보초병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장군님의 보초병이란 말이요. 그러니 동무들은 우리를 생각할것이 아니라 오직 장군님만을 생각해야 하오. 빨리 자기 초소로 돌아가시오.》

하늘의 별이 수천수만이여도 태양을 대신할수 없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지닌 김일동지는 내각 제1부수상으로 사업할 때에도 그 직책을 당과 수령을 옹위하는 제1보초병, 제1근위병의 영예로운 직무로 여기고 수령결사옹위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당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운 사상과 신념의 제일전우, 제일동지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수령의 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다.

김일동지가 전후 반당종파분자들을 적발분쇄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은것은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에 정통하였기때문이였다.

주체45(1956)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과 국가의 지도일군들이 중요한 정책적문제를 토의할 때에 있은 일이였다.

당과 국가의 요직에 있던 한 반당종파분자가 인민생활문제를 거들며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대하여 교활하게 헐뜯었다. 그자의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그자의 요설이 진속을 숨긴것이여서 누구도 면박을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을 신념으로 체득한 김일동지앞에서는 그 요술이 통할수 없었다.

김일동지는 벼락치는듯 한 노성으로 《당신이 무슨 나발을 부오. 왜 당신이 요즘 출출해하는 놈처럼 잡소리질이요.》라고 그자의 궤변에 된타격을 가하였다.

김일동지의 추상같은 기상에 그자의 기가 꺾이자 다른 종파분자가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군중의 의견이라고 두둔해나섰다. 김일동지는 불길이 황황 이는 눈으로 그자를 쏘아보며 《당신도 똑똑히 놀란 말이요. 군중은 인민인데 인민은 우리 수령님을 절대지지하고있소.》라고 호되게 답새겼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김일동지를 회고하시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 원만하면서도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였다, 그는 나쁜 놈들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자들에게 제때에 타격을 주어 우리 당과 당정책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혁명가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일동지는 당과 수령의 구상과 결심을 즉시에 접수하고 현장에서 폭풍처럼 집행해나가는 당정책집행의 제1선 돌격투사였다.

말은 적게 하여도 수령의 구상과 결심을 수령이 정해준 시간에, 수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진실로 당에 충실한 일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지휘밑에 전력증산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주체65(1976)년이였다.

김일동지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전권대표로 파견해줄것을 정중히 제기하고 즉시 현지에 달려나갔다.

김일동지는 당시 불편한 몸이였지만 당과 수령의 결심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일선용사의 자리에 정하였다.

하기에 김일동지는 려관이 아니라 현장의 가설건물에 사무실을 정한 다음 당에서 정해준 시간대로 건설일정표를 세우고 야전용전화기로 지령을 주면서 불철주야로 공사를 드세게 밀고나갔다.

건설이 지연되면 지팽이를 짚고 아픈 다리를 끌면서 건설중에 있는 보이라쪽대기에까지 오르며 발전소건설을 앞당기였다.

당에서 준 과업을 완벽하게 집행하자면 발전소정상운영에 필요한 석탄까지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탄차에 모포를 깔고 탄광 갱막장에까지 들어가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는 김일동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결사관철의 정신력으로 김일동지는 보이라에 불을 지피고 석탄까지 넉넉히 확보해놓은 다음 평양에 올라와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체계는 당과 수령이 맡겨준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실천속에서 확립된다.

이런 신념을 뼈에 새겼기에 김일동지는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도 그만, 인민들이 생활상고충을 겪어도 그만인 일군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으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도록 채찍질하였다. 그리고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를 흥정하려는 현상, 당의 령도업적을 음으로양으로 훼손시키는 현상, 당적, 계급적원칙에서 탈선하는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무서운 맹수가 되고 예리한 검이 되여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일동무가 없으면 내 오른팔이 없는거나 같다고 하시며 앓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당부하군 하시였다.

참으로 김일동지의 한생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려면 어떤 립장과 자세로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수령의 혁명령도사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전사는 수령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살며 일하는것을 긍지와 영예로 여긴다.

김일동지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풍모를 가슴에 안고 살던 김일동지는 아래에 내려갈 때면 손에 기름을 묻히고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군중과 어울리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듣는것을 습성화하였다.

공장과 농촌에 나갈 때마다 집에서 점심밥을 꾸려가지고 갔으며 끼니때가 되면 공장구내식당이나 농장포전머리에 앉아서 간단히 요기를 하군 하였다.

김일동지가 살던 집은 전후에 지은 낡은 집이여서 해당 부문에서 여러차례 보수하려고 하였다.

그때마다 김일동지는 자기 집은 이만하면 괜찮으니 한삽의 세멘트라도 아껴 인민들의 살림집을 더 많이 지어주라고 하면서 집수리를 미루었다. 일군들이 방안에 주단을 깔고 안락의자를 들여놓으려고 하자 인민들의 집에 그런것이 다 차례진 다음 우리 집에도 가져다놓자고 하며 돌려보내였다.

이러한 품성의 밑바탕에는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풍모를 따라배우려는 전사의 순결한 의리가 깃들어있었다.

김일동지는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자신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였다.

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는 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인민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거창한 변혁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를 목격할 때마다 김일동지의 가슴은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긍지와 행복감으로 뭉클 젖어들군 하였다.

하기에 김일동지는 운신하기 힘든 몸을 지팽이에 의지하고 무산과 김철, 흥남과 신포 등 전국각지를 다니며 경제사업을 정력적으로 지휘하였다. 농사철에는 농촌에 나가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고 겨울철 물고기잡이때에는 동해안의 신포지구에 나가 물고기수송조직사업을 틀어쥐고 하였다. 또 어느해인가는 북창화력발전소(당시)에 내려가 전력생산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전투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군중과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김일동지의 사업작풍은 힘있는 정치사업이였으며 그가 있는 곳마다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 로력적위훈이 창조되군 하였다.

김일동지는 당과 수령앞에서 무한히 고지식하고 진실하게 량심적으로 살아온 충직한 혁명가였고 참다운 인간이였다.

김일동지는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왔다.

김일동지는 운명하기 며칠전에도 불편한 몸이지만 당세포를 찾아가 부주석으로서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더 잘 받들지 못한 부족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가장 억센 일군이 될 결의를 다지였다. 이런 높은 당조직관념을 지녔기에 김일동지는 마지막 당생활총화를 한 다음 전화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에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잘 모셔달라는 절절한 부탁을 남기였다.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높은 직무에서 사업하면서도 자기에게 특전, 특혜가 차례지는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은것이 김일동지의 인간됨이였다.

김일동지는 어떤 경우에나 자기자신을 먼저 생각한것이 아니라 동지들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는 가정혁명화에서도 자신이 1번수가 되여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자식들이 간부자식행세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였고 부모의 그늘밑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충실성과 실력으로 당과 혁명을 받들도록 교양하였다.

이런 그였기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군 하였다.

어떤 사리와 공명도 바라지 않고 언제나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김일동지의 집에는 오래전부터 애용하여온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하여 평범한 가정들에서 갖추어놓은것과 같은 가장집물들이 있었을뿐이다. 하지만 자손들에게 천만금에도 비기지 못할 재부를 물려주었으니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였다.

하기에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김일이라는 이름에 있는 김자는 우리 수령님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뜻이고 일자는 한일자인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김일이라는 이름을 한평생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밖에 모르는 혁명전사의 신념의 표시로 간직하고있다.》라고 자식들에게 자주 말하군 하였다.

이렇듯 김일동지는 자신의 이름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웅심깊은 뜻을 새기며 당과 수령을 받드는 1번수답게 한생을 빛내여왔다.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심장의 정과 열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김일동지의 한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드는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원수님의 령도풍모를 본받으며 일해나가도록 고무해주고있다.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온 고결한 충정

주체혁명위업계승에 특출한 공적을 쌓은 김일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야 할 고귀한 전통이다.

수령에 대한 충정은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정으로 이어질 때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나가던 력사의 그 나날에 김일동지는 언제나 그 위업실현의 맨앞장에 서있었다.

김일동지는 백두광명성탄생을 백두밀림의 구호나무에 쓰던 그때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삶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른 우리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부터 그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변혁들을 체험하였다. 특히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시는 백두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기에 그는 온몸을 피롭히는 병마와 싸우면서 오진우, 림춘추동지들과 함께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부피두터운 책들을 저술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김일동지는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계승하여야 조선혁명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시는 위업실현의 새벽길을 쉬임없이 걸었다.

주체71(1982)년 2월 15일부 《로동신문》에 우리 나라 보도사상 처음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한 력사적인 정령이 발표된것도 김일동지가 우리 혁명앞에 쌓은 커다란 공적이다.

수령결사옹위의 1번수로서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받들어온 김일동지의 고결한 생애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영원한 충정의 좌표를 가리켜주고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여기에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우리모두의 영광이 있다는것이 김일동지의 생의 메아리이다.

살아서도 빛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것이 참된 혁명전사의 삶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모범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는 최후승리를 반드시 앞당길것이다.

본사기자 정선철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련맹전 시작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련맹전이 시작되였다.

3월 10일부터 4월 하순까지 **김일성**경기장 등에서 진행되는 련맹전에는 15개의 1급 남자축구팀들과 14개의 1급 녀자축구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경기는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10일 경공업성팀과 룡악산팀, 리명수팀과 평양팀, 4.25팀과 소백수팀 사이의 남자축구경기와 청천강팀과 압록강팀, 월미도팀과 봉화산팀사이의 녀자축구경기가 있었다.

첫날경기들에서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4:2라는 적지 않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치렬한 공방전을 벌린 경공업성팀과 룡악산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는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봄철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자

3월과 4월은 봄철위생월간이다.

봄철위생월간은 전체 인민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는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려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위생개조, 관리사업기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봄철위생월간사업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지금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봄철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봄철위생월간사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이번 위생월간사업에서는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며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과 유원지 등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언제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정상관리, 정상보수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미 조성해놓은 새 품종의 잔디밭비배관리사업을 빠른 기간내에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보호시설과 환경보호시설들을 보수, 개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일터를 알뜰하게 꾸리고 설비들을 더 잘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 기간에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촌마을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마을로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마을주변과 가정들에서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가꾸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급양 및 편의봉사단위들에서는 봉사시설과 비품, 도구들을 보수, 정비, 소독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상하수도망들과 위생시설물들에 대한 개선대책도 잘 세워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수 있는 비위생적인 요소들을 제때에 찾아 근절하여야 한다.

올해 봄철위생월간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이 단계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사업을 강화하며 위생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중앙을 비롯한 도, 시, 군위생지도위원회들에서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면서 이 사업이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되도록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각급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은 봄철위생월간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각지 위생방역부문의 일군들도 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열의를 부쩍 높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봄철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떨쳐나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내 조국의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보다 훌륭히 꾸려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뜨거운 애국심의 발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 근로자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상업성 로동자 서현주, 지은미, 김진향동무들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을 빛내일 불같은 일념안고 세포등판으로 달려나갔다.

살을 에이는 강추위와 온몸이 순간에 물주머니가 되는 무더위속에서 오랜 세월 버림받던 등판을 개간하고 풀판을 조성하는 일은 결코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세포등판개척자라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려는 불타는 지향을 안고 여러차례에 걸쳐 작업과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조선대양총회사 청년동맹일군인 김향옥동무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처음 그가 돌격대에 탄원하였을 때 김향옥동무를 두고 남자들에게도 힘에 부친 일을 꽤 해낼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그가 오늘은 거름생산과 잡초뿌리걷어내기, 먹이풀씨뿌리기와 비배관리 등 무슨 일이든 막힘없이 척척 해내는 혁신자가 되였다.

먼 후날 한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청춘시절을 대규모축산기지건설에 바치였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살려는것이 그의 진정이다.

하기에 그는 수십차에 걸쳐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여 돌격대원들을 더 큰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돌격대원들속에는 동신군도로건설대 로동자 김경애동무도 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그는 매일 맡은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세포등판을 집짐승떼흐르는 사회주의 푸른 언덕으로 하루빨리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그의 애국의 마음은 여러차례 성의껏 마련하여 지원한 많은 물자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만포려관 로동자 강금숙동무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돌격대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 불타는 마음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탄원한 그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전투의 나날을 성실한 땀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왔으며 여러차례 문화용품들과 많은 후방물자들도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 최경민, 합영투자위원회 옥금향, 국가자원개발성 남철봉,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는 한철옥, 모란봉구역 북새원 로동자 차광렬, 신의주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백영애동무를 비롯한 각지의 많은 근로자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우면서 돌격대원들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또한 잠업비단지도국 아래단위 일군인 림명수, 원산시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전명옥, 인민보안부 아래단위 량진옥, 경공업성 아래단위 정성금,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는 리선희, 허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강송란, 대성은행에서 일하고있는 황삼용, 보통강백화점 로동자 안금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김옥희동무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본사기자 김진욱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소식

림은심선수 3개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림은심선수가 타이에서 진행되고있는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청년녀자 58kg급경기에서 1등을 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10일 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93kg, 추켜올리기에서 113kg을 성공시켜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다같이 우승하였다.

림은심선수가 정확한 자세와 순간채기로 구간봉을 힘있게 들어올릴 때마다 수많은 관중들이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편 청년녀자 63kg급경기에서 김효심선수는 끌어올리기 2위, 추켜올리기 2위로 종합 2등을 하여 3개의 은메달을 받았다.

중국방문 국가관광총국친선참관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조성걸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총국친선참관단이 1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문대길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이 전송하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순회대사 귀국

그리고리 로그비노브 로씨야련방 외무성 순회대사가 10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가 전송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외무성 해당 일군들을 만나 쌍무관계발전과 지역정세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끝없는 동경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

기다리던 선거의 날을 맞이하여 찬성의 한표를 바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이 땅우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을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굽이쳐흐르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자기가 안겨사는 품,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고 모든 공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에 참가하여 모두가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친다. 이것은 오직 인민대중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정치생활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면서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창조적인 삶을 꽃피우는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볼수 있는 선거풍경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의 사회제도를 동경하면서 부러움의 목소리들을 터치고있다.

《이북에서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있는 로동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의원이 되고 나라일에 참가하고있다. 그들중에는 녀성들도 많다. 동서고금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이북과 같은 사회제도는 없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며 로동과 휴식, 무상치료 등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는 이북의 사회제도는 그야말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제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북을 보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나라라고 하며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펴는 사회라고 하는것이다. 이북과 같이 국민들의 권리와 리익이 담보된 사회제도에서 살고싶은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한 법학교수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돈에 의하여 무참히 짓눌리는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인간의 참된 삶이 꽃펴나고 사람들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남녘인민들의 목소리는 《로동자대표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인민의 의사에 맞는 정치를 펴나가는데 참가하고있는 사실만 놓고서도 이북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라고 한 남조선의 현대중공업의 한 로조활동가와 《이북에서는 근로민중이 사회의 주인이며 그들은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 담당자들이다. 거기에서는 근로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주권과 재부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말하자면 이북은 민중중심의 세상이다.》라고 한 서울의 한 언론인에게서도 들을수 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한두가지 아니지만 민심을 얻는것보다 더 큰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 한두갈래 아니지만 민심을 따르는것보다 더 옳은 길은 없다고 일러왔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뜻이다. 지구상에 정치의 력사가 흘러 수수천년을 헤아리지만 아무리 력사를 더듬어보고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진정한 민중중시, 민심반영의 정치를 실현한 곳은 오직 이북밖에 없다. 이북에서만이 오랜 세월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던 진정한 민중중시의 정치가 가장 참답게 실시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민중정치가 결여되여 정치적혼란과 민생불안이 사회적병집으로 되고있지만 이북에서만은 사회가 철통같이 안정되고 민중은 일심으로 단합되여있다. 민중중시가 철리로 되고있는 이북이야말로 21세기의 정치모델, 리상천국이다. 민중복지의 보금자리인 이북이 그립다. 위인의 품속에서 자주적삶을 누리는 이북민중이 부럽다.》

정계에 나설 의향을 가지고 집과 재산을 다 팔아 들이밀고도 모자라 끌내는 정치무대에서 밀려난 서울의 한 인사는 자신이 체험한 사실들을 울분에 넘쳐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나는 공화국북반부에 갈수만 있다면 이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싶은 심정이다. 로동자, 농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대의원으로 추천되고있는 이북사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인민들이 선거에 참가하여 자기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선거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정치이다. 이북의 선거제도는 인류가 꿈에서나 그려보던 리상적인 선거제도이다. 사기, 협잡,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남의 선거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동경과 찬탄의 정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승화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리였다.

《민중속으로! 이것은 이북의 가장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모습이며 이북식민중사회가 낳은 특유한 풍경이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민중만세, 민중제일을 선언한 위대한 철학이다. 이북은 이 독특한 민중숭배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에 바탕하여 당과 정권, 제도가 서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민위천의 정치를 베푸시며 민중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을 모시여 이북의 사회주의는 그렇듯 민중의 세상으로 이름떨치고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게 되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있는 이북은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억년 쇠퇴를 모르며 영원히 개화만발할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에게 오늘과 같은 훌륭한 사회제도를 마련해주시고 활짝 꽃피워주신분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기울이고계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우리 인민모두가 자주적인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하루빨리 민족의 어버이의 품에 안겨 나라의 주인으로 긍지높게 살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남녘겨레들은 애국투쟁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라설하

아름다운 녀성존중의 사회

위대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해발 넘치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녀성들이다.

《이북에서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수레의 한쪽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있다.》

《이북의 녀성정책은 해방직후부터 남녀평등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으며 녀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실질적평등을 주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을 부러워하며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문학평론가와 리화녀자대학교의 대학원생이 출판물에 낸 글들에 있는 구절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한 녀교원은 《녀성의 존엄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녀성의 온갖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이북은 정녕 아름다운 녀성존중의 사회이다. 녀성들이 남성들과 꼭같이 로동의 권리도 보장받고 녀성들이 중로동과 유해로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공장과 마을 등 가는 곳마다에 탁아소, 유치원이 있어 어머니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있다. 쌍둥이만 낳아도 그 양육때문에 걱정의 한숨소리로 땅이 꺼질 지경인 이남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고 한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일찌기 우리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담당자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며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로 이 땅우에 녀성존중의 화원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 녀성들에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실시된 국가적시책들에도 깃들어있으며 도처에 일떠선 산원들과 탁아소, 유치원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 조선녀성들은 선군시대 녀성혁명가라는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존엄높은 칭호로 불리우며 조국의 축복속에, 사회와 가정의 사랑속에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을 부러워하며 격정을 터치는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다.

어느날 저녁 목포시의 한 공원에서 울려나온 《안해의 노래》를 들으며 거기에 모인 여러명의 남조선녀성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저저마다 터놓았다.

한 녀성은 《남녘의 녀성들이 소박맞은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고있을 때 북에서는 축복의 꽃속에 묻힌 녀성들에게 남자들이 〈사랑하시라〉, 〈안해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끼고 위해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령도자님의 사랑의 정치로 녀성존중의 풍토가 정착된 북의 실상이다. 진정 김정일령도자님은 녀성들의 친어버이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있던 다른 한 녀성이 흥분을 금치 못하며 《평양방송을 들으니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해풍에 녀성해안포병들의 손이 거칠어질세라 친히 사랑의 약크림을 보내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산모들의 건강회복에 쓰라고 평양산원에 많은 량의 산꿀도 보내주셨다고 한다. 한 나라의 령수가 녀성들에게 이렇듯 다심한 사랑을 베푼적은 고금동서에 없다. 이북은 참말로 녀성천국이다.》라고 말하여 주위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그렇다.

태양의 따사로움을 떠나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운 사랑을 떠나 우리 녀성들의 값높은 삶과 존엄에 대해 말할수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녀성들의 존엄과 삶은 이 땅에 녀성존중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녀성들을 시대의 앞자리에 내세워주시고 선군으로 우리 녀성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더욱더 빛나고있거늘 민족의 어버이의 품을 한없이 그리며 그 품에 안겨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려는 남녘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그 어떤 원쑤도 다칠수 없다

요즘 미국놈들이 몹시 바빠난 모양이다. 그 큰 덩지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 군대가 쏜 로케트 몇발에 기겁해서 《위반》이니, 《도발》이니 하며 소란을 피우고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악의 나라》니, 《폐쇄적》이니 하고 험악하게 걸고들었다니 그렇게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를 압살해보겠다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불장난소동에 정신을 팔고있던 미제는 우리가 저들을 뒤간의 쉬파리떼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는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어서라도 떨어진 몸값을 올려보려 하고있다. 그 꼴은 마치 죽기 전에 악취나는 홍찌로 매닥질하며 버드럭거리는 미친개를 보는것 같아 역겹기 그지없다.

우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돌아가는자들의 삐뚤어진 눈알에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행복을 참답게 보장해주는 우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바로 보이겠는가. 더우기 초보적인 판별력도 리성도 없는 케리같은자가 한개 나라의 국무장관이라니 정말 세상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케리놈은 그 누구를 헐뜯기 전에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진단부터 받아야 할것 같다. 미국이 걸핏하면 주권국가들에 제재와 봉쇄의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국제헌병》처럼 행세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케리가 세계적인 물놀이장과 스키장, 승마장 등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높아가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제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아마 기절초풍할것이다.

미제가 최후발악을 하고 정세가 긴장할수록 나라의 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여야 할 우리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책임과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우리가 맡고있는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자각하게 된다.

우리는 미제원쑤들이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꽃바다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몸이 그대로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밑뿌리가 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겠다.

남포시 항구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리정심

절대로 변할수 없는 승냥이의 본성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비롯한 숱한 침략무력을 끌고와 불장난소동을 일으키면서 《방어훈련》이니, 《년례적》이니 하고 잠꼬대같은 넉두리를 늘어놓던 미제가 우리 전략군이 진행한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놓고 그 무슨 《위반》이고 《도발》이라고 고아대며 꽁지에 불달린 승냥이처럼 길길이 날뛰고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자들인가.

미국이 남조선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줴치군 하는 그 지겨운 《방어》타령을 우리는 언제 한번 곧이들어본적이 없다. 지난 조선전쟁때 몸서리치는 세균전만행까지 감행하며 우리 공화국을 해치려고 달려들었던 미제침략자들의 그 잔악성이 어찌 변할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 자식들도 미국이라고 하면 동물원에서 본 승냥이에 대한 말부터 꺼낸다.

원래 낮사냥보다 밤사냥을 즐기는 승냥이란 놈은 저보다 약한 짐승에게는 포악스럽기 그지없고 저보다 큰 대상과 맞다들 때는 비실비실 피하는척 하다가 기회만 조성되면 떼를 지어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는 음흉하고 잔인한 기질을 가지고있다.

비유해서 말하면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숱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고 북침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도 《방어》니, 《축소》니 하고 광고하는것은 마치 승냥이가 피묻은 이발을 감추고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것이나 같다.

미국이 아무리 너스레를 떨어도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으며 그럴수록 더욱 각성을 높이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대해서도 찍하면 《자국방어》를 위한것이고 다른 민족을 무참히 학살하면서도 《테로대비》라고 곧잘 우겨대고있다. 이번에도 미제는 우리 나라앞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몰고와 위험한 불장난을 벌려놓으면서도 《방어훈련》이라고 강변하고있다. 이런 날강도적인 수작을 거리낌없이 내뱉을 때 낯이 뜨겁지 않은가.

미제가 저들의 북침전쟁연습은 아무 일 없고 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은 《위반》이라고 걸고들며 중지하라고 고아대는것은 우리더러 동화에 나오는것처럼 승냥이앞에서 뿔을 구부린 양신세가 되라는것인데 그런 강도적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승냥이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환이 없다.

지금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안고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 군인들에게 탄약을 보내는 마음으로 생산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보약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천백배의 장수힘이 되고 적들의 아성을 들부시는 무서운 로케트탄이 될것이다.

장수고려약공장 작업반장 김경옥

코대를 꺾어놓겠다 과학기술전으로 미국의

정말 신심이 넘친다. 얼마전 우리 령내에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정해진 목표수역에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날아간 조선인민군 전략군 부대들의 로케트들은 우리의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것이다. 이런 무기들로 장비된 무적의 혁명강군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이다.

우리 조국이 날로 강위력해지고있는데 겁을 먹은 미국은 지금 우리 인민군대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그 무슨 《결의위반》이요, 《도발》이요 하고 걸고들며 마구 짖어대고있다. 시비를 가를것도 없는 파렴치한 궤변이다.

전세계의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라.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미싸일발사와 핵시험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누구인가. 최신과학기술을 악용하여 만든 각종 미싸일과 폭탄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대량학살하면서 인류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한결같이 세계깡패두목 미국을 꼽을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미제침략군은 중동지역침략에 돌격대로 내세웠던 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수역에 몰고와 우리를 먹어보겠다고 으르렁거리고있다. 이런 놈들이 우리 군대가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의 일환으로 방어형로케트 몇발을 발사한것을 가지고 아무리 생트집을 걸며 소란을 피워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미국이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코흘리개아이처럼 징징거리며 생떼를 써보아야 제 망신이다. 우리가 단거리로케트를 쏜것을 가지고 그렇게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보다 더한 위력앞에서는 파연 어떤 몰골을 하고 나올지 궁금하다. 세계에서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며 핵몽둥이를 휘두르고 허장성세해온 양키족속들인데 알고보니 원래부터 좀스럽고 비렬하기 그지없는자들이다.

미국은 최첨단무기와 과학기술이 저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과학기술로 담보해야 할 숭고한 사명감이 우리 대학생들의 심장을 세차게 끓게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사는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고 탐구하여 최첨단과학기술의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나갈것이다.

두고보라.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과학기술전에서도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어떻게 보기 좋게 꺾어버리는가를.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학생 방세혁

잡지 《통일》 2월호 발행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월간사회정치잡지 《통일》 2월호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특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이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 72돐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백두산밀영의 정일봉사진과 함께 글 《절세의 애국자》, 시 《김정일, 우리는 당신을 회고합니다》 등을 집중편집하였다.

잡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신 공개서한의 전문을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되신 소식,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신 소식을 편집하였다.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22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행사에 명예손님으로 참가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만난데 대해 소개하였다.

잡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보낸 중대제안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앞에 자기의 속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를 실었다.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데 대해서와 국제소식들을 잡지는 소개하였다.

불법행위를 일삼는 정보원을 규탄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3일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대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정보원을 규탄하였다.

그는 정보원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중을 《종북》으로 몰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권력찬탈과 진보세력탄압, 권력유지에 이런 수법을 활용해왔다고 하면서 내란음모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조작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불법 《정권》이 합법적인 정당과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보원 원장의 사퇴와 현 집권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학생들 일본의 죄악을 단죄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 교또지방본부의 주최로 2월 23일 일본의 죄악을 단죄하는 학생법정이 일본 교또에서 진행되였다. 류학동 성원들, 재일동포들과 일본대학생들,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법정에서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국제법위반행위들을 폭로하고 일본정부가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죄악을 청산할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일본정부가 과거죄악을 인정하고 재일조선인들을 포함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언자들은 일본정부가 감행한 민족교육말살책동과 재일본조선인련맹 강제해산죄행을 단죄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의 차별조치 등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탄압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919년 조선독립을 주장하여 벌린 3.1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행위는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학살범죄를 재확인해준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중대한 국제법위반행위를 저지른 일본정부에 대해 식민지지배의 인정, 철저한 사죄와 배상, 식민지조사기관의 설치와 공문서관의 창설, 그릇된 력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개선, 민족교육의 보장,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시정 등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녀성차별정책을 규탄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의 녀성차별정책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녀성들이 차별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고용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내놓은 시간제일자리는 녀성로동자들을 겨냥한 최악의 일자리라고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새로운 일자리정책인것처럼 주장하며 확대를 운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정부》의 녀성차별정책에 맞서 녀성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더이상 녀성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며 녀성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 *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녀성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8일 서울의 곳곳에서 련이어 벌어졌다.

녀성단체련합을 비롯한 200여개 시민단체성원들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적권리보장과 평등한 세상을 주장하는 녀성선언을 발표하였다.

민주로총 로조원들은 보신각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당국의 녀성일자리정책을 규탄하였다.

전국녀성련대 성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당국의 녀성차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조선중앙통신】

녀성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녀성들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평화파괴의 장본인

지금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다종다형의 첨단로케트들이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더 큰 비약적발전을 이룩할 결의밑에 생산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그 무슨 《위반》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면서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산물인 남조선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평화파괴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위협하고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남조선당국과 함께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대규모적으로 벌려왔다. 남조선에서 년례행사처럼 감행되여온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침을 노린 대규모의 핵시험전쟁, 핵선제공격연습이다. 미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때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은 극도에 달하고 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치닫군 하였다. 올해에도 다를바 없다.

미국이 지난 2월 24일부터 남조선에서 개시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이 전쟁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의 방대한 무력과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최신공격수단들, 첨단전쟁장비들이 투입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 각계가 《북을 겨냥한 선제적인 공격연습》이라고 일치하게 우려를 표시하며 규탄하였다. 실제로 호전광들은 이 전쟁연습에 북침핵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천만한 《맞춤형억제전략》과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쟁도발을 노린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적용하고 그것을 보충완성하고있다. 또한 이 전쟁연습에서는 야외기동훈련, 공중, 해상특수작전훈련, 련합상륙훈련 등 20여가지의 각종 합동훈련들이 벌어지게 된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의 북침을 위한 련합작전능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하는데로 집중되고있는 이런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을 벌려놓는자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도발》로 걸고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망동인가.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범하고 아량있는 조치에 의해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의 기운이 나타난 속에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배치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남조선 각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단죄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항공모함은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했다느니, 이번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느니, 《과도한 선전》도 없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미국은 앞에서는 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것처럼 연극을 벌려놓고 그 막뒤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공격작전들을 숙달하고 완성하기 위한 각종 공격연습들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얼마전 핵추진잠수함 《콜럼부스》호와 1만 8 000t급의 미제7함대기함 《블루릿지》호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미쳐돌아가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공격수단들로 무장하고 숱한 병력과 정보, 작전지휘기능을 갖추고있는 이 침략함선들이 왜 남조선에 기여들었는가 하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은 그 어떤 변명과 궤변으로써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핵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는 저들의 호전적몰골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는 그 무슨 《방어》니 뭐니 하고 미화하며 오히려 우리 공화국에 《도발》의 딱지를 붙이지 못해 지랄발광하는데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자기들은 지구상의 그 어디나 마음대로 타격할수 있는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의 나라 땅에 마구 끌어들이며 전쟁도발책동에 열을 올리면서도 다른 나라들은 제땅에서도 자위적인 군사력을 발전시킬수 없다는 미국의 이런 강도적론리는 오늘날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선군으로 온 세상에 존엄과 위용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는 범죄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속에서는 가뜩이나 극심한 불신과 대립속에 빠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당국에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인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릴것을 제의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할것을 요구한것이다.

미국의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연습책동은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이 그에 합세하는것은 온 민족의 커다란 위구심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의 대결과 긴장격화를 바라는 미국과 동조하면서 아무리 《신뢰》와 《대화》에 대해 말한들 그것을 과연 누가 믿을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책동에 놀아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중지할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합동군사연습책동에 종지부를 찍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가증스러운 미국의 침략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리성호

세계자주화위업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

가장 정당한 로선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집회장에 모셔져있었다.

집회에는 로씨야국가회의, 외무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웨. 아. 뻬뜨로브의 보고에 이어 제1부위원장 알렉싼드르 워론쪼브 등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광명성절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조선의 벗들의 공동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외부세력의 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선을 우주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언제나 승리를 이룩하시였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며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오늘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앞으로도 전통적인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스위스와 도이췰란드에서 토론회, 집회, 도서,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장구한 기간 당을 이끄시여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으로 보아도 응당한것이고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념원에도 맞으며 도덕의리적으로도 마땅한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인민에게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는 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주요계기들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들과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며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확언한다.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인 2월 16일은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집필하신 수많은 로작들은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조선인민은 자기 식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사상학습을 보다 심도있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로선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로선이며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을 기화로 사회주의배신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승리》를 떠들었으나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진짜승리자들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승승장구하는 조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표대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리라고 확신한다.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영원불멸할 승리의 표대

성명, 담화 발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뻬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 72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람중심의 철학사상,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류사상리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고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초인간적인 희생성과 헌신성으로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발전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승리의 표대로 영원불멸할것이다.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투쟁의 기치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쿠웨이트, 먀마인사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쿠웨이트민족사업집 관장인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유세프 알 아미리는 해마다 2월 16일을 맞이할 때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추억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는 가장 엄혹한 시기에 조선혁명을 책임지시고 조선을 붕괴시키려던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그이의 강철의 의지와 천재적인 군사적지략, 선견지명에 의해 사회주의조선은 정치군사강국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오늘 조선의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에 의하여 확고히 계승되고있다.

김정은원수각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무비의 담력,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확고히 보장되리라고 믿는다.

먀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틴 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부강조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영원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조선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계신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고귀한 정신적유산

신문 특집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광명일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박솔초소를 시찰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시고 조선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김정일각하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지난 세기말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뜻밖의 서거와 련이은 자연재해, 제국주의자들의 집중적인 압살책동으로 최악의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참으로 김정일각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신 선군태양이시다.

오늘 선군정치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래를 락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방글라데슈신문 《방글라 타임스》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의 조국애는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것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조국애가 얼마나 심원한가 하는것은 그이께서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고 강성국가로 우뚝 올려세우기 위해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그이께서 남기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인 김정일애국주의는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누구나 참된 애국의 길을 걷게 하는 등대, 라침판으로 되고있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도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놓으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이 끝없이 강성번영해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요구

국제사회계는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할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조선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로 간주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벌리는 군사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해 《년례적》이며 《방어적》인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국의 말장난일뿐이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제4언론》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미국과 남조선은 수십년동안 조선을 봉쇄하고있을뿐아니라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군사적압박을 가하고있다.

《방어》의 간판밑에 벌어지는 군사연습이 언제 전쟁으로 넘어갈지 모르므로 조선은 항시적으로 전쟁상태를 강요당하고있다.

서방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전쟁연습이 조선의 《침략》을 막기 위한것이라는 여론을 퍼뜨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에 침략위협을 가하고있다는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프랑스 인터네트신문 《아고라 복스》는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책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미국은 해마다 저들의 하수인인 남조선과 함께 조선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왔다고 폭로하였다.

핀란드신문 《뛰외깐산 싸노마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

서방은 미국이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것처럼 보도하고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언제나 침략자였으며 결코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나라로는 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근원은 명백히 미국의 남조선강점에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과 핵전쟁연습에 있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발발의 국면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된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벌가리아공산주의통일운동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급격히 격화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계평화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세계 모든 진보적정당, 단체들이 외세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호소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도발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며 조선반도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은 그 어떤 핵 및 군사적위협도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강한 억제력을 갖춘 조선인민에게 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지난 조선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전술훈련 진행, 반항공군훈련 시작

로씨야의 깔리닌그라드주에서 3일 서부군관구와 중부군관구 부대들의 전술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에는 발트함대의 기계화보병련합부대와 근위해상륙전려단 군인 3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땅크와 자행포, 5세대 통신기재를 비롯한 450여대의 전투기술기재와 특수기재들이 동원되였다. 훈련과정에 군인들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의 리용, 전투장에로의 진출, 방어시설구축을 숙련하면서 방어와 공격시의 구분대들의 전반적인 행동질서를 련마하였다. 이번 훈련의 특성은 가상적의 전파장애조성과 항공대의 타격, 포격속에서 기계화보병구분대들의 공격 및 방어전투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고 한다.

한편 로씨야의 서부군관구에서 6일 반항공군훈련이 시작되였다. 아스뜨라한주의 까뿌스찐야르사격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군관구 반항공부대의 전문병력 약 3 500명과 1 000여대의 전투 및 특수기술기재들이 동원되였다. 또한 대공미싸일종합체 《C-300》과 대공미싸일-포종합체 《뚠구스까》, 휴대용대공미싸일종합체 《이글라》의 전투근무성원들도 훈련에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세계 청각장애자수

세계적으로 뇌막염, 홍역, 이하선염 등의 후과로 인한 청각장애자수가 현재 3억 6 000만명에 달하고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케니아의 자연보호구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규탄

로씨야외무성 인권문제담당 전권대표 꼰스딴찐 돌고브가 4일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론하면서도 미국자체의 인권형편이 한심한데 대해서는 완고하게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공민들은 평등한 선거권리와 법적판결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미국의 수감자수는 세계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자기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 집안의 인권실태에 대한 년례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울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단외무성이 6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신빙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오던 수단에 대한 적대시정책으로 일관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온갖 반인륜적범죄와 인권침해행위를 일삼고있는 미국은 《인권재판관》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단평 무식쟁이도 관모를 쓰는 나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지명한 다른 나라 주재 미국대사들이 수준이 한심하여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국회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대사후보들로부터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들이 튀여나왔다. 지명된 후보들이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가 어떤 형태인지조차 모르고 앞으로 부임후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갈피를 잡을수 없는 뚱딴지같은 답변을 거듭하는 바람에 비난을 자아냈다.

돈이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미국에서는 집권자의 친구나 선거자금제공자가 대사로 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아무리 그렇다쳐도 이번 경우는 너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다.

한 외신은 미국의 현 집권자가 대통령선거기간 자기에게 많은 돈을 섬겨바친 사람들을 대사로 임명하고있으며 그렇게 임명된 대사들이 주재국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조차 모르고있다고 야유하였다.

사람들은 그런 무식쟁이들이 부임지에 가서 《초대국》의 대사랍시고 거들먹거리며 몰상식하게 놀아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개탄하고있다. 미국이 어째서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신세로 되는지 가히 알만 하다.

대통령도 대사도 돈으로 팔고사는 미국이 세상사람들의 규탄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리철혁

미국의 패권주의적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배권을 거머쥐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년간 미국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찾고 이 지역에 대한 패권주의전략을 실현하는데 광분하고있다.

우선 미국은 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전례없이 많은 군사장비를 끌어들이면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일본 등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여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극성을 부리고있다. 핵항공모함과 미싸일방위체계의 기본요소인 이지스체계를 갖춘 구축함, 잠수함들을 비롯하여 각종 군함들을 이동전개시켜 해군무력의 60%이상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주둔시켰다. 올해에 미해군은 태평양함대에 대서양함대소속 핵항공모함 《시어도루즈벨트》호를 증강배비한다고 밝혔다. 이 핵항공모함은 5 680명의 병력과 함께 전투기와 직승기 등 90여대의 비행기들을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 일본, 남조선, 오스트랄리아와 해상에서 여러차례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등 군사적결탁관계를 강화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아시아판나토》창설을 운운하고있다.

스웨리예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여러 나라들의 국방예산을 비교분석한 년례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적인 군사비지출액의 39%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제1위의 군비지출을 계속 유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발사단계에 있는 탄도미싸일을 소멸하기 위한 레이자무기를 개발하는 등 계획실현에 많은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미국의 부산스러운 무력증강책동은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지역나라들의 경계심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외신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비경쟁은 이미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국이 이른바 《아시아판나토》창설을 추진하는 경우 이 지역에서의 랭전은 기정사실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또한 미국은 분렬리간책동으로 지역에 정치적불안과 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문제와 조어도문제를 비롯하여 이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로골화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집권자가 《티베트독립》을 주장하는 달라이라마를 만남으로써 중국의 내부분렬을 꾀하는 저들의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중일사이의 조어도분쟁문제에 끼여들면서 분쟁수역 상공으로 미군폭격기들을 출동시켜 조어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주장을 로골적으로 비호해나섬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야기시키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불량국가》, 《안보위협국가》로 걸고들면서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의 핵타격연습을 련이어 강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끝끝내 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동족간의 군사적대결분위기를 고취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상쟁을 일으키려는 그와 같은 행위는 조선반도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조장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거대한 군사적대결장으로, 동족상쟁과 지역분쟁의 란무장으로 만들어 저들의 패권주의적목적을 달성하려는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골자가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적극 합세해나서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외곡책동에 대처한 강경립장

중국에서 9월 3일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12월 13일을 남경대학살피해자국가공동추모일로 제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이 결정을 채택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과 남경대학살피해자국가공동추모일을 제정한것은 현 정세하에서 중요한 력사적 및 현실적의의를 차지한다고 썼다.

중국은 피로써 승리한 중화민족의 항일력사와 일본이 감행한 중국인민에 대한 대학살만행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을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알려주어 지난날의 력사와 교훈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군국주의침략력사를 뒤집고 국제사회의 정의의 심판에 도전하려는 일본의 위험한 시도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것은 력사를 되돌려세우려는 일본의 우익세력의 로골적인 책동과 관련된다.

현시기 일본에서는 군국주의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일본은 삐뚤어진 사고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저들이 저지른 피비린 범죄의 력사를 부정해나서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잘못된 력사관이 끼친 해독적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과거범죄가 오늘에는 《영웅》적인 행위로 간주되고있는 판이다.

일본의 당국자가 침략전쟁당시 자살특공대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감동》되였다고 떠벌이였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일본결사대를 거리낌없이 찬양하는 등 우경화의 도수가 극도에 이르고있다.

일본이 력사문제에서 또다시 황당한 잡소리를 줴치면서 군국주의의 침략력사와 남경대학살을 부인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 가운데 얼마전에는 일본의 NHK방송 경영위원이라는자가 《남경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해나섬으로 하여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물의를 빚어냈다.

잘못된 력사관이 일본에서 범람하는 근본원인은 일본이 력사를 심각히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은데 있다.

중국은 일본의 철면피한 행동에 대해 력사의 말살과 외곡이라고 하면서 일본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중국정부가 12월 13일을 남경대학살피해자국가공동추모일로 제정한데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중국이 남경대학살피해자국가공동추모일을 제정한것은 남경대학살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희생된 모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일본의 침략전쟁이 중국과 세계인민들에게 심대한 재난을 초래하였다는것을 폭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의 존엄과 력사적정의, 세계평화를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보여주기 위한것이다.

중국정부는 자기 나라가 중일관계발전을 일관하게 중시하며 력사를 명백히 기억하려는것은 력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며 비극적인 력사의 재현을 방지하자는것이라고 하면서 일본당국자가 력사와 인민, 미래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로 력사를 바로 보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중국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옳은 력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화되고있다.

내용이 풍부하고 사상성, 예술성이 강한 영화들과 각종 출판물들, 전자오락을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리용하고있다.

일본당국자의 야스구니진쟈참배를 비난하고있는 중국은 얼마전 외국보도기관을 대상으로 남경에 있는 기념관을 소개하는 취재행사를 조직하였다.

많은 기자들이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폭행을 감행하고 시체를 불태우고 흔적을 없애버린 력사자료들과 해당 문건원본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남경대학살생존자들을 취재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적지 않은 외국언론들의 보도와 론평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일본측이 이렇듯 많은 유력한 력사적사실앞에서도 여전히 생억지를 쓰면서 잘못을 뉘우치려 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회가 일본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력사를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력사를 똑바로 보고 력사를 거울로 삼을 때에만 미래를 지향할수 있다, 일본이 어느 길로 나아가겠는가에 대해 일본측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모두 주시하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이 력사자료를 새롭게 정리하여 공개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일본이 계속 우경화의 길로 줄달음친다면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많은 나라들이 반발해나서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국제사회는 일본을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세계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결같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와 인민들속에서 반일기운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본사기자 라명성

ㄱ-41039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